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형 선별진료소 및 보건의료 대응

김진용

인천광역시의료원 감염내과

2019년 말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원인미상의 폐질환은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세계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에 대한민국도 2020년 1월 20일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과 함께 초기에 대응을 하기 시작하였고 2월 18일부터 시작된 대구, 경북지역의 환자 확산세에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진단검사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증상을 발생하기 전부터 바이러스를 배출하여 무증상 감염을 일으키고, 증상이 경미한 질환 초반에 바이러스 배출량이 매우 많아서 지금까지의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새로 써야만 했습니다. 바이러스는 또한 감염재생산지수 2.5~3.5 정도로 전파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령과 취약계층의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아서 전세계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뜻밖에 찾아낸 마스크의 효과와 유용성에 대해 초기의 의구심을 벗어나서 이제는 전 세계가 받아들이는 과정도 인상적입니다. 팬데믹 대응의 11개월을 넘기는 동안 있었던 진단검사, 역학조사, 치료 및 예방의 방법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뉴노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키워드

코로나19, 진단, 역학조사, 치료, 예방, 뉴노멀